

# 慶南地域 朝鮮 前期 白磁 考察(Ⅰ)

: 河東 白蓮里 白磁을 중심으로

金 尹 姬\*

## 〈목 차〉

- I. 머리말
- II. 경남지역 백자요와 白蓮里 窯址
- III. 백자의 분류와 특징
- IV. 地方窯의 변화와 白蓮里 白磁의 의미

## 국문요약

조선백자의 발달은 관요백자 뿐 아니라 지방백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방백자의 연구는 그 지역의 공간을 매개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이므로 주목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시도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된 河東 白蓮里 陶窯址에서 수습되는 도편의 특징을 파악하여 조업시기와 유물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조선 전기 경남 지역 지방백자의 구체적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하동 백련리 도요지는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위치하며 발굴조사 결과 소토 범위와 자연퇴적층, 가마 벽체편 등이 확인되었고 당시의 가마구조는 파괴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대접·접시·잔·호 등 일상생활 용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흑상감백자, 조문음각의 호편, 어문의 병편, 제기 등 고급품도 일부 확인되었다. 육안으로 관찰되는 태도에 따라 양질과 조질 백자로 구별되며 연질과 경질 백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형은 16세기에 경기도 廣州 중앙 관요에서 제작되던 기형상의 특징과 지방요에서의 세부를 꼼꼼히 마무리하거나 장식

\* 慶南文化財研究院

하지 않는 제작경향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어 지방요와 관요간의 인적 교류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백련리 출토 백자는 경남지방에서 15~16세기를 이어 오면서 민수용으로 제작된 백자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백자 대접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으면서도 안바닥에 원각이 사라진 점 등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로 시간이 경과하며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전기나 중기에 걸쳐 지방요에서 제작되던 백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물의 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출토된 파편은 16세기에 설치되었던 관요 및 경기도 광주 일대, 지방의 백자가마에서 제작되던 기종과 기형·요도구 등의 특징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백련리의 조업 시기는 16세기 중·후반으로 생각되어진다.

하동 백련리 출토 백자가 지방 백자의 연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기 백자의 발달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한다.

주제어 : 경남지역, 조선 전기, 하동 백련리, 관요, 지방요, 지방백자, 연질백자

---

## I. 머리말

조선백자는 그 특징을 형성한 요인 가운데分院으로 통칭되는官窯의 운영과 그 영향을 손꼽을 수 있는데, 궁궐용의 자기를 생산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분원은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조선 후기까지 도자산업의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그 영향은 전국에 파급되었다. 이후 조선 백자양식은 분원의 주도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연구 또한 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국에서 무수히 제작된 이른바地方白磁에 대해서는 분원에서 제작된官窯白磁의 양식적 테두리 안에서 이해되고 있을 뿐 저마다의 미적·기술적인 변화나 지역성, 제작배경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아 주목받지 못한 실정이다. 조선백자의 발달은 관요백자 뿐 아니라 지방백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방백자의 연구는 그 지역의 공간을 매개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이므로 주목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sup>1)</sup>

특히 경상남도 지역의 백자 연구 상황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요가 설치된 곳이 아니었기에 경남지방에서 생산된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위치한河東 白蓮里 陶窯址<sup>2)</sup>는 조선 전기로 추정되는 다량의 도편과 백자 가마 수기가 분포하고 있어 1974년 시도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된 곳이다.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하동군의 의뢰를 받아 유적의 정확한 분포범위와 성격 등을 파악하고 주변지역의 민묘 조성과 경작 등으로 인한 훼손, 파괴를 막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기하고자 2002년 8월 19일~9월 25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량의 백자편과 가마 벽체편 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하동 백련리 요지에서 수습되는 도편 특징을 파악하여

---

1) 분원의 설치 이전에는 지방의 여러 가마에서 그 지방의 특수 토산물로서 공급할 때 상품 자기를 특별히 번조하였으므로 중앙요와 지방요의 구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에 분원이 설치됨으로써 중앙 관요와 광주 일대를 벗어난 지방요의 개념이 생겼다. 종속요와 주변요 등 여러 가지로 세분되는 견해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중앙관요(분원)가 아닌 곳에서 생산활동을 한 가마는 지방요, 거기서 생산된 백자를 지방백자라고 명명한다(김영원, 2002, 『분원관요와 지방요』,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지방백자란 1470년경부터 관요가 운영된 경기도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운영된 모든 가마를 일컫는다(강경숙, 1998, 『도자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 『미술사연구』 제12호, 133쪽).

2) 金尹姬, 2007, 『泗川 沙村里 窯址 白磁 研究』, 『慶文論叢』 창간호.

3) 鄭義道·金尹姬, 2003, 『河東白蓮里陶窯址』, 慶南文化財研究院

조업시기와 유물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조선전기 경남지역 지방백자의 구체적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II. 경남지역 백자요와 白蓮里 窯址

### 1. 경남지역 백자요

도요지는 도자기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생산과 수요에 따른 생산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식되고 있다.<sup>4)</sup> 기존의 가마터 조사는 경기도 분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요 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전국 각지에서 구제발굴과 학술 발굴 등 다양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빈도수가 증가하여 지방요 자료의 축적과 연구자, 조사자의 수적 증가를 가져왔으며 지역별, 시기별로 연구가 진행되어 구체적인 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지역은 1985년 하동군을 중심으로 한 지표조사에서 고려 말부터 조선 분청사기와 백자 가마터 등이 발견되어 서부 경남 일대의 가마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1996년 산청 방목리 백자 요지 발굴과 2001년 하동 백련리 도요지 조사에서 15~16세기 양질과 조질 백자가 동시에 출토되고 있어 조선 전기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었고, 2002년에는 사천 사촌리에서는 연질계의 17세기 파편이 다량 수습되었으며, 17~18세기대의 의 백자 가마가 울산<sup>5)</sup>의 대곡댐 건설부지 내 방리에서 발굴되어 경남지역에서 조선 전역에 걸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백자요의 조사 예는 표 1과 같다.

4) 金尹姬, 2005, 『朝鮮前期 慶南地方の 磁器窯』, 『十六・十七世紀における 九州陶磁をぐる技術交流』 第15回 九州近世陶磁學會 國際學術大會.

5) 울산 방리와 상삼정리는 1997년 7월 15일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기에 경남지역 조사사례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표 1. 경남지역 백자요 조사 사례

번호	조사연도	조사 지역	조사 기관	시 기	조사 보고서	구분	비고
1	1984	경남 하동군 일대	국립경주박물관	15C~20C	『慶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 - 河東郡을 中心으로』, 1985	분청 백자	지표 조사
2	1996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부산대학교박물관	15C 말~ 16C 전반	『山淸 放牧里 白磁窯址』, 2000	분청 백자	발굴 조사
3	2001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경남문화재연구원	16C	『河東 白蓮里 陶窯址』, 2003	백자	발굴 조사
4	2002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경남문화재연구원	17C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도요지 시굴조사』지도위원회자료, 2002	백자	시굴 조사
5	2002	경남 진해시 웅천 두동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5C 중반 ~ 16C	『진해 웅천도요지』 II, 2004	분청 백자	발굴 조사
6	2002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방리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17C	『울산 방리유적』 II, 2004	백자	발굴 조사
7	2002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상삼정리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18C	『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 사업 편입부지내 5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2	백자	발굴 조사
8	2004	서부 경남 일대	국립진주박물관	15C~19C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2004	분청 백자	도록
9	2005	경남 남해군 일대	경남문화재연구원	11C~18C	『남해군 도요지 정밀지표조사』, 2005	청자 분청 백자	지표 조사
10	2007	부산 기장군 장안 일대	경남문화재연구원	14C~18C	『기장군 도예촌 조성을 위한 장안읍 일원 도요지 정밀지표조사』, 2007	청자 분청 백자	지표 조사

표 1에서와 같이 경남지역에서는 지표조사 3건, 시굴조사 1건, 발굴조사 5건, 도록 1건 등 총 9건이 확인되었고 그 외 각종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을 통해 합천·밀양·양산·김해·산청·고성·사천·하동 등지에서 조선 전시기에 걸쳐 이르는 수많은 가마가 분포 운영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문화재 조사 보고서 등에서는 주변유적으로 위치만을 간략하게 기록하였을 뿐 자세한 사항은 검토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것은 관요에 비해 지방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남지역은 서쪽으로는 섬진강, 남강, 황강과 동쪽의 낙동강 수계를 따라 하동·사천·산청·양산지역 등 수많은 도요지들이 산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생 산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운송로가 확보되고 있다.

또한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경상도 일대의 당시 최상의 질의 태토 매장처 임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며 분원 所用 백토 채굴지역으로 진주·곤 양·경주·울산·김해·하동 등이 명시되어 있고, 지금까지 조사된 가마가 삼림 이 무성한 산사면이나 소구릉의 능선에 축조되는 것도 가마 운영에 있어서 원활 한 연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도자기의 생산지로 적합한 중요한 요건은 자기를 굽는데 필요한 열감을 조 달하기가 쉬운 곳,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즉 태토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곳, 생산된 도자기를 소비자가 있는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한 교통로를 확보하여



그림 1. 하동지역 요지 분포도

야 하며 도자기의 부피가 크기 때 문에 특히 바다나 강을 이용한 수 송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동군 진교면 은 사천지역과 인접하여 생산된 자 기를 운송하기에 대단히 좋은 조건 을 점하고 있고 특히 하동의 지리 적인 위치가 지금의 진주와 사천 등과 경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길 또는 육로를 이용하여 생산 된 도자기를 수요처에 공급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世宗實錄』 『地理志』, 『慶 尙道續撰地理志』, 『新增東國

輿地勝覽』 등 조선 전기 기록에는 하동의 자기소·도기소 에 관한 기록이 없으 나, 조선 후기 『承政院日記』에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는 좋은 백색을 내기 위해 백토 시험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다. 예컨대 광주 수토, 양구 백 토, 진주 백점토, 곤양 수유토, 봉산 서면 백토, 원주 백토, 그리고 충주·경주·양 구 등지에서 백토를 쓰고 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하동과 곤양 흙에 관한 내용이다. “곤양 수유토가 맥이 다해서 지난해 분원 낭청을 보내 그 부근을 여러 곳 답사하였는데 하동의 토품이 곤양만은 못해도 다른 데 보다는 나아서 채취해왔고 또한 이를 분원 번조관이 시험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그 보고에 의하

며 하동 수을토 다섯 되를 전에 쓰다 남은 곤양토 두말 닷 되와 배합해서 수비 시험해 보니 빛이 모두 청홍이고 광택이 나지 않아서 결코 쓸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sup>6)</sup> 진주·하동·곤양 등의 백토광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제된 백토 산출지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교면과 인접한 사천시 곤양과 곤남 일대와 진주를 아우르는 지역에 해당되는데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백토 산출지의 대부분은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지역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민수용 백자를 제작하던 곳들과 거의 일치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즉 백토는 지방백자 가마의 입지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다.<sup>7)</sup>

현재 하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요지는 그림 1, 표 2와 같다.<sup>8)</sup>

표 2. 하동지역 도요지 현황

번호	도요지	위치	출토 유물	시기	참고
1	신월리 도요지	고전면 신월리 뒷산	백자편	미상	.
2	백련리 도요지	진교면 백련리 산 26-3번지 사기마을	백자, 도기 분청사기	16C	도기념물 제24호 경남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3	고이리 도요지	진교면 고이리	옹기		경상대학교박물관 발굴조사
4	북천면 도요지	북천면 직전리 직전마을	?	?	.
5	화정리 요지	북천면 화정리 화정마을	백자	18C~19C	.
6	양구리 요지	옥종면 양구리 양구마을	백자	19C~20C	.

6) 『承政院日記』 肅宗 39年(1713) 8月 4日, “司饗院啓曰, 進上瓷器所用昆陽水乙土之脈已盡, 上年爲送本院郎廳, 看審其旁近諸處, 則河東土品, 雖不及於昆陽, 猶有勝於他處, 故仍爲掘取以來矣, 卽見分院鑄造官所報, 則以爲河東水乙土五升, 交合於前日用餘昆陽土二斗五升, 水飛試鑄, 則色皆青黑, 且不滑澤, 決不可用云。”

7) 장기훈, 2003, 『분원과 지방백자의 관계 시고-발굴유적을 중심으로』, 『조선관요박물관과 학술세미나-조선의 도자문화와 관요의 의미』, (재)세계도자기엑스포.

8) 국립경주박물관, 1985, 『慶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河東郡을 中心으로』; 하동군지편찬위원회, 1996, 『하동군지』;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문화유적 총람 3-경상남북도』; 진교면지편찬위원회, 2002, 『진교면지』; 국립진주박물관, 2004,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현재 파괴되어 없어지거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있다.

## 2. 백련리 요지 그림 2·3

하동군 백련리 도요지는 진교 인터체인지에서 진입하여 1002번 국도를 따라 하동 방향으로 약 4km 정도 가다보면 백련리 사기마을에 이르게 되는데 마을 북동쪽에 위치한 새미골(현대요)의 북쪽 구릉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관곡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서 수량이 풍부하고, 양질의 태토와 주변의 산지에서 연료를 획득하기에 용이한 지역으로 요가 입지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에도 새미골요를 비롯한 많은 현대요들이 분포하고 있다.

백련리 요지는 조사당시 녹차나무와 매화나무 등 많은 조경수들이 재배되고 있으며 조사구간의 동서를 관통하여 새미골요의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어 지형의 자연 경사면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었다. 또한 북동쪽으로는 민묘 3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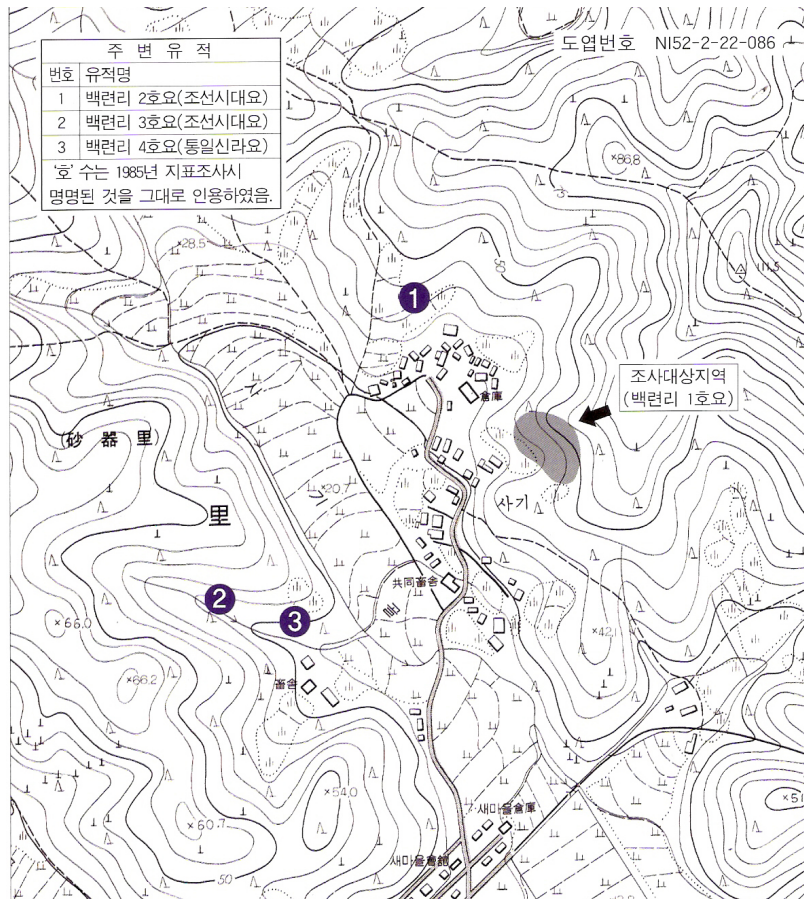


그림 2. 백련리 도요지 위치도

위치하고 있고 서남쪽은 최근까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남쪽은 새미골요에서 태토를 채취하고 난 후에 폐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에 착수할 당시 경사면의 일부에는 부식토에 소토가 부분적으로 포함된 퇴적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양의 자기편들이 퇴적층이나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유적의 원래 지형은 이미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련리 도요지는 1985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sup>9)</sup>에서 4기가 확인되었는데 1호요는 새미골의 북쪽 능선에 위치한다. 2호요는 1호요 건너 북쪽 약 200m 떨어진 지점의 밤나무밭 속에 있으며 잔존상태는 양호하다. 그리고 3호요는 새미골요에서 서쪽으로 건너편 산등성이(가마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공사로 인해 일부가 파괴되어 훼손 상태는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4호요는 통일신라 토기요로 추정되며, 3호요 맞은편 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위치한다.<sup>10)</sup>

발굴조사는 새미골요(현대요)의 북쪽 소구릉 사면의 경사도가 30°에 이르는 데 산책로나 기타 경작으로 드러난 단면을 확인한 결과 많은 자기편과 소토가 확인되어 요지는 사면을 이용하여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경사면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트렌치 단면에서는 부식토 아래에서 소토가 다량으로 확인되어 소토면을 중심으로 전면 제토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장축을 남북축으로 하며 길이가 약 15m 정도 폭이 5m, 두께가 약 20cm 정도의 소토와 요의 벽체편이 포함된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토 I 층은 북쪽이 소토의 밀집도가 아주 높아서 북쪽에 있는 묘역까지 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퇴적층이 부식토-소토-부식토-풍화암반토가 구성되어 있고 소토는 부식토 상층에 떠 있는 상태로 요의 바닥과 같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북쪽의 민묘 부근에서도 소토가 포함된 층이 확인됨에 따라 민묘 부근과 조사구역의 서쪽 사면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을 확장하여 표토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소토 퇴적층에서는 부식토에 소토와 요의 벽체편, 그리고 자기편이 섞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백련리 요지는 소토와 퇴적층, 가마 벽체편, 다량의 자기편 등이 확인되었으나 가마는 이미 파괴된 것으로 생각된다.

9) 국립경주박물관, 1995, 『慶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 -河東郡을 中心으로』.

10) 1985년 지표조사 당시 2·3호에서도 1호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도편들이 수습되었다(국립진주박물관, 2004, 앞의 책, 154-1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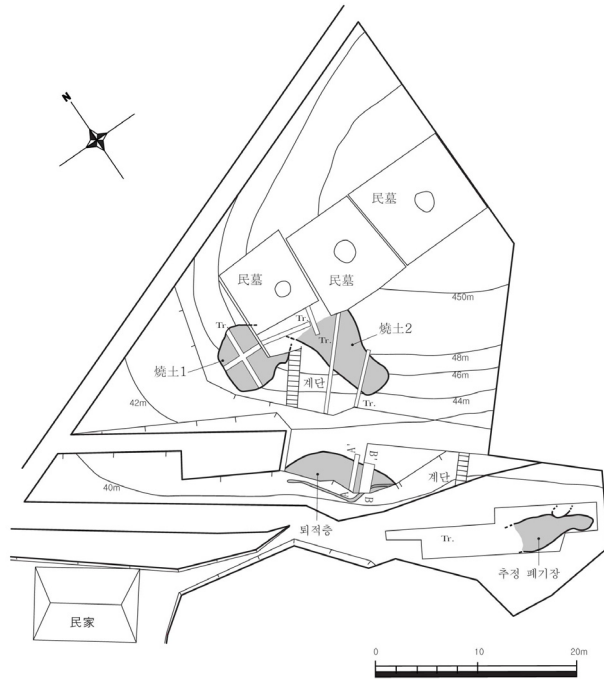


그림 3. 백련리 1호요 유구 배치도

### Ⅲ. 백자의 분류와 특징

#### 1. 현황 및 분류

하동 백련리 출토유물은 총 1,870여 점에 이르며 백자편, 분청사기편, 도기편, 요도구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지표에서 수습되는 것과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것으로 지표수습과 퇴적층, 폐기장 등에서 수습된 유물 모두 매립된 위치만 다를 뿐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큰 변화는 없고 각 기종 내에서도 형식적으로 큰 차이를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에는 파손 상태가 심하여 그 형식을 파악하기 어려운 파편들이 다량 혼재되어 있었다.

표 3. 분석대상 유물의 종류와 수량

구분	도자기			요도구	계
	백자	분청사기	도기	받침(도지미)	
수량 (%)	1602 (88.0%)	5 (0.02%)	200 (10.6%)	60 (0.32%)	1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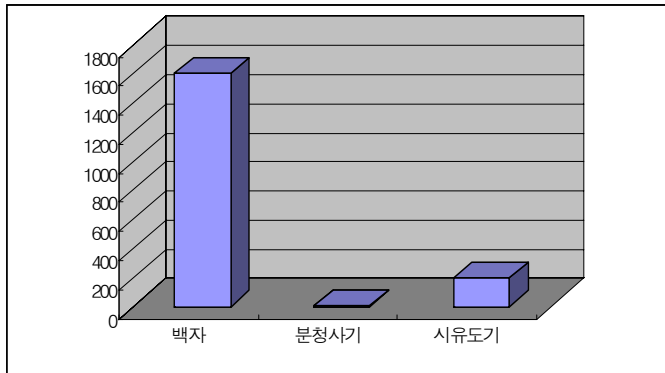


그림 4. 백련리 출토 유물 종류 분포도

위의 표 3과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분석대상 유물은 백자로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다. 이는 백련리 요가 백자를 주로 번조한 가마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청사기편도 일부 수습되고 있어 백련리 이 시기에는 백자뿐 아니라 분청사기도 함께 번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기이다. 시유도기는 녹갈색으로 기벽이 매우 얇고 구연은 외반하며 중형의 저장용기의 편들이 출토되었는데 백자편과 함께 소토층에서 출토되어 백자와 함께 번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백자는 육안 관찰에서 확인되는 태토의 특성에 따라 연질백자와 경질백자로 선별한 다음, 잡물 및 잡티 등 불순물의 함유 정도에 따라 良質과 粗質로 구분하였다.<sup>11)</sup> 일반적으로 질적 분류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경기도

11) 조선 전기 경남지역 연질백자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경인, 2005, 『조선 전기 연질백자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33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姜景仁·張起熏·片山まび·權素玄, 2006(平成 18年), 『朝鮮時代の軟質白磁に関する基礎研究-様式と科學分析を視座として』, 『東洋陶磁』 第25号; 고민정, 2006, 『경상남도 요지 출토 경질과 연질백자에 대한 물성 및 원료분석 -두동리, 백련리, 사촌리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백자는 일반적으로 재질상태와 관련해서 연질과 경질로 크게 구분된다. 조선시대 대부분 지역에서 제작된 백자는 경질계통의 백자이고, 경남과 전남의 특정지역에서는 조질의 담갈색 태토와 균열이 발생된 상아색의 유층으로 이루어진 연질계통의 백자가 16세기 전후에

광주 요지에서 출토 백자이다.<sup>12)</sup> 광주 요지의 백자는 왕실이나 관청에 공급되는 백자를 양질 백자로, 그 밖의 주변에서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자를 조질 백자로 분류한다. 양질의 고급백자는 정선된 태토와 유약을 사용하여 완성 후 빛깔이 설백색이나 유백색을 띠고 굽빚음과 기벽이 깨끗하다. 반면 조질로 분류되는 백자는 태토와 유약의 정선도가 낮으며 그릇의 제작도 거칠다. 그리고 번조 방법에서도 고급품은 갑발을 사용하는 甲燻이며 저급품은 그릇을 포개어 굽는 上燻이다. 이 같은 기준 자료를 근거로 볼 때 백련리 출토 백자는 대부분이 상변으로 제작하는 조질 백자에 속한다. 그러나 백련리에서는 이러한 조질이라는 객관적인 테두리 안에서 약간의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잡물이나 잡티가 혼합되어 연회백색을 보이는 예가 많지만 출토된 파편 중에는 잡물이 거의 없는 유백색의 백토를 사용한 예도 소수 발견된다. 따라서 조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비교적 태토가 유백색에 가깝고 이물질 등이 거의 없는 것을 다시 양질로 분류하였다. 반면, 유색이 회청색이거나 녹색 계통이고 태토에 사립 등이 약간 포함된 것을 조질로 분류하였다.

---

제작되었다. 지금까지 연질과 경질 백자는 번조 온도의 차이로 태토의 자화상태 등이 달라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연구자마다 연질과 경질의 분류개념이 다른 상황이다. 연질백자는 1차적으로 제작기술 및 지역적 여건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강경인, 앞의 논문).

또한, 양질과 조질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관요(分院)에서 생산되어 왕이나 궁궐 등 왕실에 사용되던 백자를 양질로, 그 외 지방요에서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번조된 백자를 조질로 사용하는 개념과, 태토의 제질의 측면에서 거친 태토를 사용한 예가 많고 기술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제작방식과 상변으로 번조한 백자와 유약의 정선도, 제작과정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마무리 하였는가에 따라 양질과 조질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良·粗를 상대적으로 2가지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고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양질과 조질은 현재 도자사에서 연질 백자 자체를 조질로 보고 있고 양질과 조질의 판단이 분류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김나영·김규호, 2006, 『중성자사회분석법을 의한 활용한 경상남도 발굴 지방백자의 특성분류』,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24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쪽).

12)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1986, 『廣州 朝鮮 白磁 窯址 發掘調查報告』-樊川里 5號·仙東里 2, 3號

표 4. 출토유물의 기종과 수량

		기종	개수	비율	
백자	양질 (A)	대접	130	7.8 %	11.5 %
		접시	55	3.3 %	
		잔	6	0.4 %	
	조질 (B)	대접	1,070	64 %	84.9 %
		접시	265	15.8 %	
		완	25	1.5 %	
		잔	5	0.4 %	
		항아리	22	1.3 %	
		기타(합·병·제기)	32	1.9 %	
	기타	도지미	60	3.6 %	3.6 %
총계		1,6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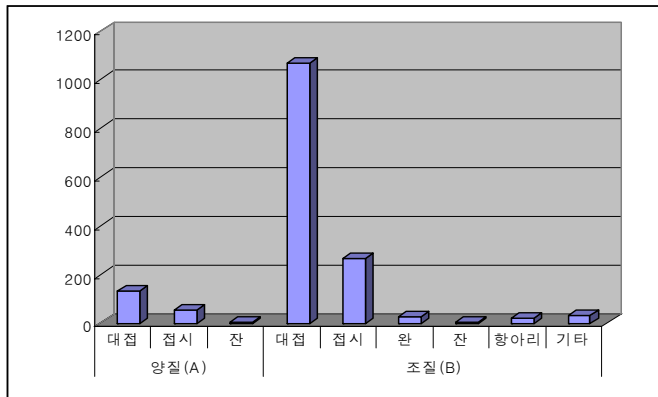


그림 5. 백련리 출토 백자 품질에 따른 기종 분포도

하동 백련리 1호요 유물 중 미세하고 정선된 태토인 백토를 사용한 것은 A 타입으로, 정선된 태토이지만 카우린 성분과 철분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태토 자체에서 연회백색토를 사용한 것은 B 타입으로 구분하였다. A 타입은 대접과 접시, 귀잔 등 3기종만 있는 반면 B 타입은 대접, 접시, 완, 잔, 항아리, 기타(합·병·장군편·제기·뚜껑)의 다양한 기종으로 분류되었다. 전체 비율(%)에 있어서 A : B = 11.5% : 84.9%로 되어 전체 기형 중 80% 이상이 B 타입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자기에 사용된 태토의 정선도, 성형과정에서의 마감처리상태, 유약의 시유상태에서 양자 간에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질적이 차이와는 달리 기형에서는 양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의 질적 차이가 시기적인 차이보다는 제작과정에서 특정 수요층과 일반 민수용 그릇을 별도로 제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각 기종별 기형의 형태에 따라 어느 정도 시기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질적인 차이를 제작시기로 차이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양질 백자에는 일상 용기 외에도 마상배·귀잔 등 특수 기종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양적으로는 압도적인 조질의 백자에서 특수 기종이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수요층을 염두에 두고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번조에 있어서도 조질과 양질의 기물을 함께 번조하였다. 이는 번조온도에 있어 다수를 제작하였던 조질에 맞춰진 것으로 파악되며 양질인 일부 기물은 번조 온도가 미치지 못해 연질화 된것이라고도 생각된다.

백련리 유물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물에 보이는 장식기법이다. 그 극소수에 해당되지만 흑상감을 이용하여 장식한 壺片과 흑상감의 어문 장식편이 붙어 있는 용도 불명 도편, 대접 굽바닥에 ‘x’ 모양의 철화 장식이 각각 출토되고 있다.<sup>13)</sup>

발굴조사는 백련리 1호 요지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5년 지표조사에서는 백련리 3호 요지에서도 철화장식을 한 예가 확인되고 있다.<sup>14)</sup> 철화백자는 대부분이 17~1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sup>15)</sup> 백련리에서 일부 보이는 철화장식이 시기적인 차이인지 지역적차이인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예가 극소수인 것으로 17세기 대의 전반적인 상황에 맞추지 보다는 백련리의 특징으로 파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분청사기에서는 백토로 분장 한 후 굽어내는 조화·박지기법을 사용한 예와 표면을 넓게 칠한 귀얄기법도 확인된다.

또한 미백색의 백토 태토위에 백토로 분장한후 백토를 굽어내어 장식한 백자조화조문합뚜껑등이 확인되고 있어 분청사기와 백자의 제작이 경계를 이루어 제작된 것이 아니라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문인 경우는 대부분이 백자의 대접과 접시 등 이 다수를 차지하고 흑상감 장식과 분청사기의 장식기법은 편병·병·호의 기종에서만 확인된다.

백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백자편을 중심으로 형식 분류를 시도하였다. 기종은 대접·접시·잔·호 등 일상생활 용기가 대부분이며 대접과 접시가 전체 유물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분청사기나 병·항아리·벼루·마상배 등도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며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지나지 않으므로 작은 파편이라도 모두 포함시켰다. 그리고 제작된 기명의 종류와 제작량, 전체 생산량에서 각각의 기명이 차지하는 비율을 선정하기에 앞서 선별한 파편들의 개체수를 확인하였으

13) 음양리 유적에서도 굽바닥에 ‘x’로 철화 장식한 예가 보인다(경북문화재연구원, 2003, 『大邱-浦項間 高速道路 新設區間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14) 국립진주박물관, 앞의 책, 1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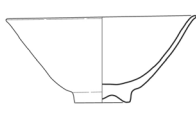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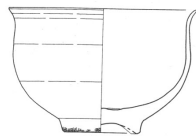
15) 최윤정, 2004, 『조선17~18세기 전반 지방백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며 정확한 형식을 파악할 수 없는 파편들은 그 기종만을 구분하여 개체수를 선정하였다.

형식의 분류는 굽을 포함하여 구연부까지 1/5 이상 남은 것부터 완형에 가까운 것들을 선별하여 시도하였다. 그러나 구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백련리에서 출토되는 굽의 종류는 모두 포함시켰다.

대접은 사전적 의미에서 위가 넓적하고 아래는 편평하며 운두가 낮은 그릇으로 국이나 송늑을 담는 뚜껑 없는 食器라고 나와 있다. 鉢<sup>16)</sup>과 형태가 유사하여 구분이 모호한 예도 있지만, 전체 크기가 발에 비해 작고 안바닥의 원각이 굽의 직경과 같거나 보다 좁은 것을 대접으로 분류하였다. 『朝鮮陶磁名考』<sup>17)</sup> 나타나는 대접의 넓은 의미는 국이나 국수, 송늑 등을 담던 그릇이다. 또한 발은 飯用 그릇으로 바리떼의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대접보다 오목한 그릇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발과 대접의 분류는 우리가 ‘밥주발’, ‘국대접’이라고 부르는 다음 표 5 같이 대접과 발을 정리 할 수 있겠다.<sup>18)</sup>

표 5. 대접과 발의 기종상의 차이 분류안

용어	그림	사전적 의미	『朝鮮陶磁名考』	비고
대접		위가 넓적하고 아래는 편평하여 운두가 낮은 그릇. 국이나 송늑을 담는 뚜껑 없는 食器	大掇(井鉢) 크고 국이나 국수 등을 담는 것	전체 크기가 발에 비해 작고 안바닥의 원각이 굽의 직경과 같거나 보다 좁은 것을 대접으로 분류하였다.
발		바리떼-사기로 만든 그릇. 아래 좁고 위 넓게 만들어 밥·죽을 담음.	沙鉢-飯用 鉢 대중소의 구분이 있음	식기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口徑이 크고 저부가 넓으며 높이도 비교적 높은 외형상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한다. 발을 분류할 때 안바닥의 원각이 굽의 직경보다 현저히 큰 것과 전체의 크기가 현저하게 큰 것을 발로 분류하는 예가 있다.
* 발과 대접의 분류는 우리가 ‘밥주발’, ‘국대접’이라고 부르는 관용적 명칭을 고려하여 용도상으로 나누기도 한다(崔 健, 2000, 『“干支”銘靑磁의 製作時期와 製作窯』,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郷』, 강진청자 박물관).				

16) 鉢은 식기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口徑이 크고 저부가 넓으며 높이도 비교적 높은 외형상의 특징이 있다. 대접과 분류가 모호하여 분류자에 따라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안바닥의 원각이 굽의 직경보다 현저히 큰 것과 전체의 크기가 현저하게 큰 것을 발로 분류하는 예가 보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이 대접으로 분류된다.

17) 『朝鮮陶磁名考』(淺川巧 箸·鄭明鎬 譯, 1931, 京仁文化社)는 저자가 일제강점기 때 10여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들을 모은 책으로, 당시 조선인들이 사용하던 자기들의 명칭과 어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18) 박형순, 2004, 『조선시대 지방의 백자가마에 대한 연구-충청·전라·경상도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쪽.

접시는 사전적 의미로 반찬, 과일 등을 담는 얇고 납작한 그릇[楮子]라고 되어 있으며 『朝鮮陶磁名考』에서는 ‘皿’이라고 하여 부식을 담는 그릇, 접시, 접자라고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경이 크고 높이가 낮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구연부는 주로 외반된 형태이지만 직립하는 경우도 있고,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거나 가장자리에 원각이 있는 예도 있다.

완은 대접과 형태가 유사하기도 하지만 크기에 있어 현저히 작고 용도상에서 말차 등을 풀어서 마시는 것을 완<sup>19)</sup>으로 하였다.

잔은 술잔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완과 다른 개념임을 밝혀둔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잔은 16세기 백자 요지에서 다수 발견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16세기 전반이나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안바닥 가장자리에 음각황선과 같은 선을 돌려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1호 요지의 잔은 성형 후 원각을 생략하였다.<sup>20)</sup> 굽은 대체적으로 깎음새가 거칠고 세부를 꼼꼼하게 다듬지 않았다.

## 2. 특징

백련리에서 출토된 자기류는 백자가 주종을 이루며 백자의 형식분류 결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련리 요지에서 출토된 자기류의 기종은 대접·접시·잔·호 등 일상생활 용기가 대부분이며 대접과 접시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병이나 馬上杯 등도 제작되었을 것으로도 추정되지만 분청사기편이 대부분 백자는 조사한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표조사에서 백련리 2호요에서 마상배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1호요와 시기 차이가 현격히 나지 않으므로 마상배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종의 조합은 16세기에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던 광주에서 특별한 의식용기나 다양한 기종을 제작하던 것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수요가 많았던 일상생활 용기만을 집중적으로 제작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방요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기형은 기벽이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접은 크게 두 개의 기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주둥이의 가장자리가 밖으로 벌어지고 안바닥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둥이와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안바닥에 굽의 직경보다 다소 큰 원각이

19) 완은 대접과 유사하나 소형으로 높이는 6.0cm 이하 구경 14.0cm 이하로 하였다. 대접의 소형보다 크기가 작다. 여기서 잔은 술잔과 같은 소형의 잔을 일컫는다.

20)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6, 앞의 책.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주둥이나 몸체의 형태에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백자 대접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안바닥에 원각이 사라진 점 등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로 시간이 경과하며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기나 중기에 걸쳐 지방요에서 제작되던 백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이러한 현상은 주둥이의 가장자리가 밖으로 벌어진 外返襟 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6세기 백자 외반접시에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음각횡선도 일부의 출토품에서는 약화되어 표현되거나 사라졌다.

음각횡선이 사라지거나 세부의 표현을 생략하는 것은 잔에서도 확인된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잔은 16세기 백자요지에서 다수 발견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16세기 전반이나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안바닥 가장자리에 음각횡선과 같은 선을 돌려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1호 요지의 잔은 성형 후 원각을 생략하였다.<sup>22)</sup>

따라서 출토유물의 형태에서는 16세기에 광주 등 각지에서 제작되던 기형상의 특징이 나타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요에서 세부를 꼼꼼히 마무리하거나 장식하지 않는 제작경향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에서 제작된 백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접이나 접시·잔 등의 굵은 대체적으로 깎음새가 거칠고 세부를 꼼꼼하게 다듬지 않았다. 형태는 15~16세기 경기도 광주 및 지방 백자 가마터의 파편에서 볼 수 있는 대나무 마디[竹節] 모양 굵의 특징이 남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형적인 모습에서는 다소 변화되어 있다.

자기류의 유색은 연록·담록·회백 등이 주류를 이룬다. 15~16세기 백자의 유색은 순백이나 담청백·회백 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이곳에서는 연록계열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당시 전국에서 제작된 백자의 공통된 특징이라기보다는 백련리 1호 요지 또는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유상태는 대체적으로 좋지만, 일부는 유약이 두꺼워 굵 언저리에서 성글게 묻혀 있는 예도 있다.

받침은 굵바닥 3~4곳에 사질의 내화토를 손톱만한 크기로 만들어 받쳐 번조하였다. 이것은 경기도 광주<sup>23)</sup>나 다른 지방에서 발견되는 백자의 다수가 태토를 둥글게 빚어 사용하던 것과는 구분된다.<sup>24)</sup> 일부 지방의 가마터에서 사질의 내

21)釜山大學校博物館, 2000, 『山淸 放牧里 白磁窯址』.

22)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6, 앞의 책.

23)國立中央博物館, 1995,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道馬里 1號 窯址-』;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3, 『廣州 牛山里 9號 朝鮮 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화토를 받쳐 번조한 예가 드물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러한 방법은 지방요에서 사용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곳 유적의 주변 곳곳에 암반이 매우 고운 입자로 풍화된 토양이 형성되어 있는데 굽받침에 사용된 사질의 내화토와 풍화토가 매우 유사하므로, 혹시 적당한 점력이 있는 풍화토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점토와 혼합하여 받침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태토는 육안으로 관찰되는 미백색 백토 즉 양질의 태토와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회백색 백토 조질 태토로 나눌 수 있다.

백련리 태토의 조성결과는 연질백자와 경질백자보다는 양질과 조질에 따른 분류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양질 계통은 경상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백자에 비하여 Al<sub>2</sub>O<sub>3</sub>가 높게 측정되므로 카오린 함유량이 많다고 생각되며 이는 육안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이나, Fe<sub>2</sub>O<sub>3</sub>는 다른 백자에서도 평균적으로 함유하는 정도로 측정되므로 백련리 연질백자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조질 계통은 Al<sub>2</sub>O<sub>3</sub> 조성이 낮으므로 양질과 비교하여 카오린 함유 정도

24) 번조기법은 도자기를 번조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 즉, 가마 도구를 살펴봄으로써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가마도구를 제작 사용하는 것은 가마를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기술자가 아니면 모방하기 어려우므로 장인의 이동을 통한 기술 전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본田まび, 2003, 『壬辰倭亂 前後의 韓日陶磁 比較研究-日本 九州 肥前陶磁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7쪽, 일부 수정 재 작성하였다

〈조선 백자 받침 일람표(정식보고서 간행)〉

유적명	시기	받침	개수	부착법	비고
광주 우산리 9호	15C~16C 전반	기는 모래	-	접지면	
광주 번천리 1호	15C~16C 전반	태토	3~4	굽내부	
광주 선동리	17C 후반	굵은모래	-	접지면	
군포 산본동	15C~16C 전반	태토	3~4	굽내부	
안성 화곡리	17C 후반	굵은모래	-	접지면	
대전 장안동	17C 후반	굵은모래	-	접지면	
대전 정생동	16C 후반	굵은모래	-	접지면	
충주 미륵리	17C 후반	굵은모래	-	접지면	
부여 갓점골	17C 전반	굵은모래	-	접지면	
공주 학봉리	15C~16C 전반	굵은모래	-	접지면	(철화분청-백자)
천안 양곡리	15C~16C 전반	굵은모래	-	접지면	
광주 충효동	15C~16C 전반	태토	3~4	접지면	(분청 / 백자)
보령 용수리 3호	15C~16C 전반	태토	3~4	굽내부	
장성 대도리	16C 말~17C 초	태토	3~4	굽내부	
승주 후곡리	17C 후반	굵은모래	-	접지면	
곡성 송강리	17C 후반	굵은모래	-	접지면	
칠곡 다부동	15C~16C 전반	내화토	3~4	굽내부	
안동 신양리	16C 후반	내화토	3~4	굽내부	
산청 방목리	15C~16C 전반	내화토	4	굽내부	
진해 웅천	15C~16C	내화토	4~7	굽내부	
하동 백련리	16C	내화토	4~6	접지면	

가 적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사용 원료가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체계적 식과 주성분 분석을 통한 통계 분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도기의 태토 조성은 백자와 비교하여 주성분과 일부 조성에서 차이가 크므로 사용된 원료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sup>25)</sup> 즉 조질과 양질 백자는 미량성분의 패턴에서 구분되므로 원료의 산지가 다르거나 수비와 첨가제, 그리고 원료의 배합과 같은 제작과정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고 하였다.

또한 번조에 있어서도 조질과 양질의 기물을 함께 번조하였다. 이는 번조온도에 있어 다수를 제작하던 조질에 맞춰진 것으로 파악되며 양질은 일부 기물은 번조온도가 미치지 못해 연질화 도니거승로 파악된다.

요업 도구 중 백련리에서는 도지미만이 확인되었는데 도지미는 경사진 요상에서 그릇을 번조할 때 바닥에 깔아 그릇의 수평을 유지하여 주는 요도구이다. 대체로 내화성 있는 점토로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드는데 가마의 바닥에 따라 모양새가 달라진다. 높은 원통형의 도미지부터 벽돌, 그릇형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백련리에서 출토되는 예는 원통형과 절구형, 단면 삼각형 등으로 단면이 삼각 형태를 띠는 것 등이 확인되며 이것은 16세기 분청에서 백자로 제작되는 가마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 등이다.

백련리 도지미는 총 60점으로 높이와 직경이 비슷하거나 높이가 다소 낮은 원통형의 도지미가 발견되는데, 유사한 형태가 다른 지방의 16세기 백자 가마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아령형의 도침도 소량 확인되는데, 15세기 전반 분청사가 가마 등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비슷하며 대체적으로 높이가 낮고 직경이 다소 큰 편이다. 이들 요도구는 전국 각지의 15~16세기 백자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것들과 유사한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한편 광주나 경기도 주변 지역의 백자 가마터에서는 벽 내부에 백토를 얇게 칠해준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잡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선 전기 가마에서는 확인되고 있는데 백련리에서는 단지 점토를 사용해 가마의 벽체를 제작했던 파편만을 확인하였다. 출토된 백자 파편에는 굽바닥 3~4곳에 사질 내화토가 붙어 있는 예가 있으며, 내면 안바닥에도 거의 모든 파편에 반침 흔적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가마 천정의 높이만큼 그릇을 수직하게 쌓아올려, 질은 다소 저하되더라도 다량을 짧은 시간에 제작할

25) 김규호, 2005,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도요지 출토 백자의 과학적 분석연구 보고서』,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문화재보존과학과.

26) 김규호 외, 2006,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전통 도자기의 고고화학적 분류 기법 개발』, 공주대학교 25쪽.

수 있는 포개구이[常燔]의 방법을 택하였다. 匣鉢의 파편은 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물의 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출토된 파편에서 16세기 관요가 설치되었던 경기도 광주 일대 및 지방의 백자 가마에서 제작되던 기종과 기형·요도구 등의 특징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백련리의 조업시기는 16세기 중·후반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기종 기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백련리 유물에 대한 분류와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종을 중심으로 한 백련리 출토유물을 지금까지 조사된 조선 전기의 다른 요지의 유물들과 비교 검토하여 상대편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백련리와의 비교대상은 1554년 절대기년명을 가진 변천리 5호를 비롯한 조선전기 관요와 지방요이다. 변천리 5호는 관요이지만 양질의 왕실자기만을 생산한 곳이 아니라 상변으로 번조한 궁궐자기를 생산하던 곳이다. 관요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분원의 설립 이후 지방의 사기 장인들이 부역을 하기 위해 셋으로 나누어 교대로 입역하던 ‘分三番立役’제로 분명 지방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하며 변천리는 최상품을 생산하던 곳이 아니라 궁궐에서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기를 제작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전기 지방요와 함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 광주에는 290여 곳에 가마가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 백자를 제작하던 곳으로 확인되었지만 어느 해부터 白磁全燒 가마가 운영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발굴을 통해서 이곳에서부터 백자가 운영되었으며, 문헌기록에 의하여 1467~1468년 사이에 사용원이 관리하는 관요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7)</sup> 다만 가마는 민영화되는 1884년까지 왕실과 궁중 소용의 백자를 제작하였다.

한편 광주 이외에 전국 각지에서 민간의 수요를 담당하던 지방의 가마도 제작 활동을 벌였으며 동시기 관요와 지방요의 백자는 기형이나 세부의 특징, 제작방법 등에서 공통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마의 운영이 하나는 사용원, 다른 하나는 민간에 의한 것이며 백자의 수요자도 전자는 왕실과 궁중, 후자는 민간이므로 세부의 형태나 질, 성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을 제작하던 관요와 지방요의 구조 형태 등이 서로 구분될 가능성도 있다.<sup>28)</sup>

27) 金英媛, 1995, 『조선 전기 도자의 연구-분원의 설치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232쪽.

28) 전승창, 1998, 『15世紀 粉靑沙器 및 白磁의 需要와 製器性格의 變化』, 『미술사 연구』 12에서 재인용.

관요와 지방요는 기본적으로 유사하기도 하지만, 세부나 변화과정에서는 차이를 갖고 있다. 왕실용 백자의 제작에 사용되는 갑번이 관요에서만 나타나는 것처럼, 광주의 가마는 사용원에 의하여 관리되며 일정한 격식에 맞추어 축조되고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관요에 비하여 지방요가 변화의 폭이 크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준다.

표 6. 관요와 지방요 조사 현황표

지역 시기	官窯	地方窯					비고
	광주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전기 (15C~16C)	우산리 2호						
	우산리 17호						
	건업리 2호					방목리	
	우산리 9호					음양리	
	번천리 5호	산본동	용수리 3호			백련리	
	번천리 9호				대도리	신양리	
중기 (17C~18C)	선동리 3호	화곡리	정각리		문길리	방리	
			하구암리		후곡리	사촌리	
			노근리		송강리		
			장안동				
후기 (18C 후반 ~19C)	분원리 1호		늑전리		피서리		
			미륵리	귀래리	수옥리		
계	8곳	2곳	8곳	1곳	6곳	6곳	

조선 전기 지방의 백자 가마들에서 생산된 유물들은 대체로 內底圓刻이 넓고, 동체에 볼륨감이 풍부한 외반 구연의 기형들이 주류를 이룬다. 지방에서 이들 백자가 언제부터 백자가 생산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보령 용수리 3호 가마, 산청 방목리 가마, 광주 충효동 퇴적층 조사를 통해서 그 대략적인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대접류, 접시류에 특히 잘 나타나는 내저원각은 15세기 백자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대체로 17세기 중엽까지 이어지는 제작기법상의 특징의 하나로 내저원각은 15~16세기의 굵 직경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굵 직경보다 좁아지면서 소멸된다.<sup>29)</sup>

백련리의 경우 굵 직경과 비슷한 것에 해당되는데 중앙 관요와의 직접 비교가 다소 성급할지는 몰라도 최근의 조사성과들을 보면 조선 전기에 있어서 지방요와 중앙 관요는 제작기법, 기종구성, 기형 등에서는 같은 특징들이 보이므로

29) 鄭良謨, 1980, 『李朝白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 19 李朝篇, 小學堂.

내저원각의 특징적인 변화는 백련리의 시기 비정에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백자 기명은 점차 17세기(부여 정각리)부터 구연이 내만한 형식이 채용되기 때문에 백련리는 전형적인 조선 전기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중반으로 갈수록 내저원각이 점차 없어지고, 죽절굽은 오목굽으로 변화하며, 번조 받침의 경우 태토비짐에서 모래비짐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저원각이 있고 죽절굽이며 사질내화도를 받쳐 번조한 백련리는 조선 전기의 양상을 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상배·귀잔 등 조선시대 초기의 표본유물이 제작되는 등 중앙 관요에서 제작되던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귀잔은 귀의 부착형태에 따라 두개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귀가 한개 달린 것과 귀가 두개 부착된 것으로, 귀 형태에 따라 丁자 모양의 귀가 2개 부착된 것과 翼판의 귀가 2개 부착된 것이다. 귀잔과 비교 할 수 있는 자료가 출토된 자료로는 광주 도마리 1호, 광주 우산리 9호, 광주 번천리 9호와 전라남도 광주 충효동 요지, 산청 방목리 요지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유적들은 15~16세기에 편년되는 유적이다.

마상배와 귀잔의 경우 충효동 가마 출토의 마상배가 곡선으로 벌어지는 굽 형태에서 집선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변화되고 귀잔은 귀 동체가 완전히 밀착된 형태에서 귀와 몸체 사이의 공간이 생기는 형태로 변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이와 비교해 볼 때 백련리 마상배는 배신부분만 남아있어 상대적으로 편년하기는 좀 어려우나 15~16세기의 표본유물인 것만은 확실한 것이다.

백자를 번조할 때 재입하는 방법이 가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재입은 그릇에 갑발을 씌워 불길이나 재티로부터 보호하는 경우와 가마의 분위기에 그대로 노출시켜 굽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재입방법은 백자의 질이나 가마의 성격을 대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가마의 구조와 크기에 따라 1회 제작량의 대략적인 추정도 가능하다.

갑발을 사용하지 않고 그릇만을 포개어 쌓아 번조하는 방법은 관요가 있던 광주는 일부 가마에서 나타나지만, 지방에서는 모든 백자 가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소성방법은 5~7개의 기물을 포개어 번조하는 상번이며 포개구이방법은 동일 기종을 최하단부터 쌓아올려 최상단에 잔이나 동일 기종만 쌓아 소성한 경우가 있다.

크기별로 보면 하단의 2~3개는 같은 크기의 그릇을 놓고 상단 2~3개는 점점 작은 그릇을 놓아 번조한 경우가 있는데 번조받침의 크기도 무게를 상대적

으로 많이 받는 하단의 경우는 2~3cm 정도로 크고 상단으로 갈수록 번조받침의 크기와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백련리에서는 번조받침은 사질내화토 받침이 사용되었고 소량의 모래비짐 등이 있다. 도지미 위에 모래를 묻힌 최하단 기물을 놓고 그 위에 4개의 태토비짐을 붙인 기물을 3~5단 쌓았으며 최상단의 기물은 대부분 3개의 작은 사질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이것은 여타 조선 전기 가마 중 대부분의 상변에서는 태토비짐이 주로 확인되나 사질내화토는 산청 방목리와 그 외 지표조사에서 확인되는 경상도 일대에만 보이는 특징으로 파악된다.

유약의 시유방법에 있어서는 부분을 잡고 담금법으로 시유되어 굽과 굽 언저리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굽다리에 손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예도 있다. 하지만 백련리 유적은 굽 언저리까지 모두 시유되어있으며 기벽과 굽 언저리 부분의 성글게 묻힌 흔적은 백련리만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백련리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청사기의 존재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 약 1%에 지나지 않는 소량이지만 분명히 이 가마에서 제작, 소성되었던 것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가마의 요업시기는 아직 분청사기를 제작하던 시기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분청사기는 16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백련리 가마의 조업시기는 16세기 말 이후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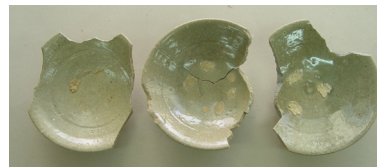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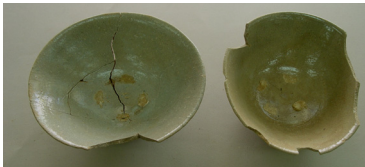
품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즉 양질과 조질은 이것이 자기의 질적 차이가 시기적인 차이보다는 제작과정에서 특정 수요층과 일반 민수용 그릇을 별도로 제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마에서 양질의 백자와 조질의 백자를 함께 제작하는 모습은 보령 용수리 3호와 산청 방목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에서도 확인되며 그 외 지표조사에서 함께 수습되는 예가 다수 있다.

물론 각 기종별 기형의 형태에 따라 어느 정도 시기성을 고려 할 수는 있겠으나 질적인 차이를 제작시기의 차이로 보기에선 무리가 따른다. 양질 백자에는 일상용기 외에도 마상배·귀잔·제기 등 특수 기종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양적으로는 압도적인 조질 백자에서 특수 기종이 살피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수요층을 염두에 두고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1,610점의 유물 중 다리가 4개 달린 제기가 1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질의 태토로 만든 것으로 특수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에서는 보이지 않아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질<양질> 대접

연질<양질> 접시



경질<조질> 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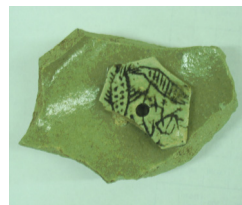
경질<조질> 접시



조질+양질 동시번조

백자조화조문합뚜껑

백자상감선문호



도지미 각종

백자상감어문편

사진 1. 백련리 출토 유물 각종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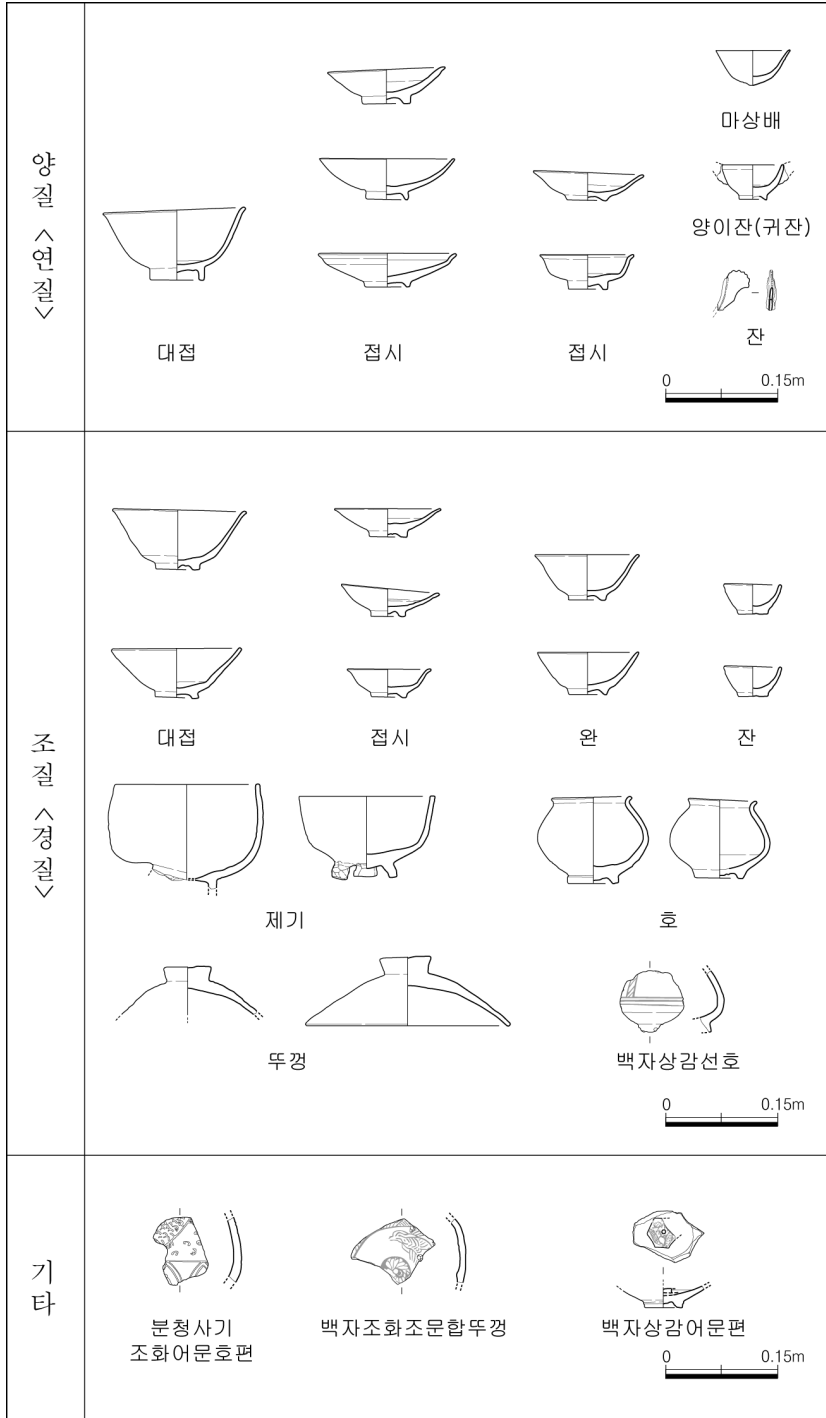


그림 6. 백련리 출토 대표유물

표 7. 조선 전기 오지 시기별 기형 변화표

오지 기종	발	연결	결시	관	관	중지	비고	점점	비고 판권
광주 우산터 9호		×			×	×	관요	감편 영편 상편	15호비- 16호전반
광주 도마리 1호		×				×	관요	감편	16호
광주 빈천리 5호		×			×	×	관요	감편 상편	16호
산원 방죽리	×				×		지방요 (양질/조질)	상편	15호- 16호전
산동 읍성터	×			×	×		지방요	상편	15호- 16호
보령 용두리	×			×	×		지방요 (양질/조질)	상편	16
경산 신암리		×		×	×		지방요 (양질/조질)	상편	16호후
하동 백림리	×					×	지방요 (양질/조질)	상편	16호후
부여 장각리					×	×	지방요	상편	17

#### IV. 地方窯의 변화와 白蓮里 白磁의 의미

고려청자의 전통을 기반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분청사기는 15세기 중반부터 백자의 제작과 수요가 증가하며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데 그 요인으로는分院으로 통칭되는 官窯의 운영과 그 영향을 손꼽을 수 있다. 분원은 궁궐용의 자기를 생산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분원은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조선 후기까지 도자산업의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그 영향은 전국에 파급되었다.

특히 15세기 전반까지도 분청사기를 주로 사용하던 상류층에서 중반 이후 백자에 대한 선망과 함께 점차 수요가 증가하였던 것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후 백자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날로 증가하자 왕실에서는 上下의 辨別을 이유로 백자제작이나 靑華白磁의 사용을 신분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사용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백자에 대한 집착으로 중국산 청화백자를 밀수입해 사용하였고, 결국 15세기 전반의 질이 좋은 분청사기는 백자의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왕실이나 상류층 수요자의 관심에서 벗어나 점차 지역적인 개성이나 특징이 나타나는 자기로 변화되었다.

세조 13년(1468)에 사옹방이 사옹원으로 개칭되면서<sup>30)</sup> 궁중의 식사와 잔치에 관을 일을 맡아보는 기구로 확장되었다. 예종 원년(1469)에 편찬된 『經國大典』 工典에 보면 사옹원 소속의 사기장 380명이 직접 사기제작을 하고 있어서 1470년을 전후하여 왕실과 관청용 백자를 제작하는 관용 백자 제조장인 사옹원에 소속된 '분원'의 설치시기<sup>31)</sup>를 기점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sup>32)</sup> 그

30) 『世宗實錄』 卷42, 세종 13年 4月 己亥條, “改司饗房 爲司饗院 始置祿官”

31) 官窯와分院이 설치된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다. 정양모는 『經國大典』 반포 당시 이미 광주 분원에서 왕실용 사기번조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설치 시기가 宣祖(1568~1608) 연간 이전이라는 학설을 내놓았다. 정양모, 1992, 『司饗院과分院』, 『國寶』 8, 白磁·靑沙器, 웅진출판사 189-193쪽; 윤용이는 1470년을 전후하여 분원이 설치되고 이것이 백자제작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윤용이, 1993, 『朝鮮 初期 陶磁의 樣相』, 『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79쪽; 강경숙은 분원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사옹원 관리가 정식으로 어용 그릇을 만드는데 파견된 후라고 보아 분원 설립은 1469년 이후의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강경숙, 1994, 『分院成立에 따른 靑沙器 編年 및 靑華白磁 개시문제 시론』, 『李基白 先生古稀記念 韓國史學論叢(하)』, 일조각, 1496쪽; 김영원은 사옹원의 개칭 연대인 세조 13년(1467년)에서 『經國大典』 工典의 편찬 연대인 세조 15년(1469년) 사이에 분원이 설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원, 1995, 『朝鮮 前期 陶磁의 時期區分』, 『朝鮮 前期 陶磁의 研究』-分院의 설립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54쪽.

32) 尹龍二, 1993, 『朝鮮 初期 陶磁의 樣相』, 『韓國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러나 중앙에서 백자의 제작이 본격화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주 中牟縣의 경우처럼 지방의 도기소는 품질이 변화되고 가마의 수가 줄어가는 등 몰락이 진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관요가 만들어지고 조선 조정이 직접 자기의 생산과 수요를 관장하여 지방의 도자기 제작지에는 심한 타격을 주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경국대전』에 경공장과 외공장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사기장의 지역적 분포와 수의 변화, 그리고 공자의 성격 등을 통해서도 이들 관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기록에 보이는 경공장 380명의 사기장을 일시에 어떻게 충원했는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에는 인원의 구성방법과 과정에 대한 당시의 구체적인 문헌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47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전국 각지의 지방요가 급속하게 감소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예종 원년인 1469년에 만들어진 『慶尙道續撰地理志』의 도자소 기록과 함께 역시 같은 해에 완성된 『경국대전』 공전 공장조에서 외공장으로 기록된 경상도 사기장의 편성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문제해결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sup>33)</sup> 『경상도속찬지리지』에 품등이 중품으로 기록된 제작지의 경우는 외공장에 편성된 예가 전혀 없고 하품을 제작하던 일부 지역에만 외공장이 편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헌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상주·안동·진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좋은 품질의 자기를 제작하던 도자소의 우수한 장인을 왕실용과 관청용 백자를 생산하는 경공장에 편입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즉 중품을 만들던 사기장을 모두 제외하고 보다 질이 떨어지는 하품을 만들던 도자소의 장인들을 굳이 그 지방의 외공장에 편성시킨 데에는 더욱 긴요하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중앙의 경공장 편성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방의 제작소에서 중품의 자기를 만들고 있던 사기장의 일부를 『경국대전』에 보이는 경공장 380명으로 편성시키고 왕실과 중앙 관아에서 사용할 자기를 만들게 하였던 결과, 각 지방의 제작지는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옹원의 관리들이 御器를 감독, 제조하여 광주에서 얼마동안 체류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慵齋叢話』에 “...매년 사옹원 관리를 파견하여 좌우변으로 나누어...봄부터 가을까지 제조 감독하여 御府에 수납한다...”<sup>34)</sup> 는 기록으로 보아 결빙기동안인 2~3개월을 제외하고는 장기간 상주했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이 같은 상황은 실제

33) 물론 경상도지역 이외에도 경기도·전라도·충청도 등지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경상도속찬지리지』와 이들 지역에 대한 기록을 적은 책이 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의 방법이 지금까지의 문헌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34) 成倪, 『慵齋叢話』, 卷10, “... 每歲遣司饗院官 分左右邊...從春至秋 監造而輸納于御府.....”

작업자였던 380명의 공장에게도 마찬가지로였던 것으로, 이로 인해 지방의 사기장들이 이전에 각 지방에서 하던 작업에는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유능한 사기장은 사옹원 소고의 사기장이 되었고 매년 일정한 양의 사기를 수납해왔던 국가가 이를 줄여가면서 점차 수납하지 않음에 따라, 전국의 도자소는 살아남기 위해 민용의 도자기를 제작하는데 힘썼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위의 표에 대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 백자의 제작이 본격화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의 도자기 제작소는 품질이 하락되고 가마의 수가 줄어가는 등 몰락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옹원 분원이 광주에 설치된 이후 분원의 백자 제작에 자극받은 지방요는 분청사기의 백자화, 백자 가마의 開窯가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sup>367</sup>

분청사기 가마에서 백자가 동반 출토되어 분청사기 가마가 백자화 되는 예로 발굴 조사된 광주 충효동 가마터에서는 1457년을 전후 퇴적된 W2지역 8층에서부터 태토빛음을 받쳐구운 인화, 조화, 박지분청과 함께 같은 받침 수법의 백자가 출토되어 약 1510년까지 점차 내화토빛음을 받쳐 구운 귀얄분청과 백자가 증가하였다.<sup>377</sup> 이와 같은 현상은 백자 가마의 성격을 지닌 산청 방목리와 안동 신양리 가마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들 가마에서는 각각 방목리에서는 내화토빛음받침의 분청사기가, 신양리에서는 내화토섞인 모래빛음받침의 귀얄분청사기들이 같은 받침수법을사용한 백자와 동반 출토되었다.<sup>387</sup>

조선의 도자는 분원의 설치에 따라 관요와 지방요 체제로 전환되어 각각의 왕실 및 관청, 그리고 만간의 수요에 대응하는 백자를 생산하였다. 분원과 지방백자는 서로 다른 수요와 생산의 규모 및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백자 생산에 필요한 백토 및 사기 장인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985년에 발간된 경남지역 도요지 조사보고-하동군을 중심으로 에서 조사를 실시했을 때의 목적 중의 하나가 이도자원을 제작했던 가마를 확인하고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차완과 관련 있는 중요 요지 설명』<sup>397</sup> 글에서도 이도 자원과 관계가 있는 요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글에서 하동 백련리 유적이 이도다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유적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인지

357) 강경숙, 1988, 『분원설립시기에 관한 소고』,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 통문관.

367) 전승창, 1996, 『15世紀 陶磁所 考察(I)-경상남도 상주지역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호암미술관 연구 논문집』1, 98~100쪽.

377) 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1993,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387) 부산대학교박물관, 2000, 『山淸 放牧里 白磁窯址』; 경남대학교박물관, 1992, 『대구-춘천간 고속도로건설예정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군위-안동간)』.

397) 윤용이, 1989, 『차완과 관련된 중요 요지 설명』, 『성대사림』, 성균관대학교사학회.

하동 일대의 도요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마가 훼손되고 파괴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하동에 관한 기록이 없고, 1956년에 나온 『세계도자전집』에서 진교면과 적량면의 백자 가마터가 3곳 소개되었을 뿐이다.<sup>40)</sup> 백련리 발굴조사 결과 가마와 폐기물 퇴적층은 이미 훼손 교란되었고 상당량의 도편만이 수습되었다. 도편 중에는 귀얄 분청사기와 덩병 분청사기가 소수 있고 양질의 백자가 일부, 대부분이 조질계의 백자편 등이다.

그 중 백련리 1호요에서 출토되는 백자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백련리 백자는 양질 백자와 조질 백자가 함께 번조되었던 가마로서 분청사기와 백자가 공존하면서 16세기 관요와 지방백자를 이어가는 중요한 유적임을 알 수 있었다. 백련리에서 출토된 자기류는 백자가 주종을 이루며 백자의 형식 분류 결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백련리 요지에서 출토된 자기류의 기종은 대접·접시·잔·호 등 일상생활 용기가 대부분이며 16세기에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던 廣州에서 특별한 의식 용기나 다양한 기종을 제작하던 것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수요가 많았던 일상생활 용기만을 집중적으로 제작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방요의 특징으로 확인될 수 있다.

유물의 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출토된 파편은 16세기에 설치되었던 관요 및 경기도 광주 일대, 지방의 백자 가마에서 제작되던 기종과 기형·요도구 등의 특징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백련리의 조업시기는 16세기 중·후반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렇다면 16세기 경남지방 하동에는 이러한 백자들이 대다수 번조되었고 현재 수습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 만큼 수요가 많았기 때문인데 수요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백자를 사용할 만큼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었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에는 농본정책을 쓰고 상업을 억제하는 입장이어서 조선 전기엔 수공업이 대체로 관영 수공업 체제라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므로 농본정책을 바탕으로 경제가 뒷받침되었고 식생활과 관련하여 그릇의 수도 그만큼 많은 것이 요구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글은 유구가 파괴되어 확인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물의 특징만으로 도요지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많은 자료의 축적과 연구로 하동지역에 대한 도자문화를 전반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이 글은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추가하여 고찰(Ⅱ)을 준비하고자 한다.

40) 강경숙, 2004, 『경남 일원의 분청사기』,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국립진주박물관, 208쪽.

## 參考文獻

### 史書

- 『經國大典』  
『慶尙南道續撰地理志』  
『慶尙南道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 단행본 · 보고서

- 강경숙, 2000, 『韓國陶磁史의 研究』, 시공사.  
강경숙, 2005,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아트.  
강만길, 1984,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 한길사.  
권병탁, 1979, 『전통도자기의 생산과 수요』, 영남대학교 출판부.  
김영원, 1995, 『조선전기 도자의 연구 - 분원의 설립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김영원, 2003,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방병선, 2000, 『朝鮮後期 白磁 研究』, 일지사.  
윤용이, 1993, 『韓國陶磁史研究』, 문예출판사.  
鄭良謨, 1990, 『韓國陶磁器』, 문예출판사.  
경기도박물관, 2001,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1, 『도요지 발굴 성과 20년』 특별전도록 32.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2004, 『진해 웅천 자기요지(Ⅱ)』.  
경남대학교박물관, 1992, 『안동 신양리 조선 백자요지』,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예정 지역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군위-안동간)』.  
경남문화재연구원, 2003, 『河東 白蓮里 陶窯址』.  
경북문화재연구원, 2003, 『大邱-浦項間 高速道路 新設區間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국립경주박물관, 1985, 『慶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하동군을 중심으로』.  
국립광주박물관, 1993,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국립진주박물관, 2004,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 국립중앙박물관, 1995,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道馬里 1號 窯址』.
- 목포대학교박물관, 1995, 『장성 대도리 가마유적』.
- 부산대학교박물관, 2000, 『산청 방목리 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 韓國水資源公社·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6, 『陶窯址 發掘調査 報告-保寧댐 水沒地區 發掘調査報告③』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6, 『廣州 朝鮮 白磁 窯址 發掘調査 報告書-번천리 5호, 선동리 2·3호-』.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3, 『朝鮮 白磁 窯址 發掘調査報告書-附 牛山里 9號 窯址 發掘調査 報告』.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한국 백자 도요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蔚山 芳里 遺蹟 II』.
- 해강도자미술관, 1992, 『광주의 백자 요지』.
- 해강도자미술관, 2000, 『廣州 建業里 白磁窯址-建業里 2號 가마 遺蹟發掘調査報告書』.
- 해강도자미술관 외, 1996, 『陶窯址 發掘調査 報告-保寧댐 水沒地區 發掘調査報告③』.
- 호암미술관, 1990, 『陶窯址 遺蹟』, 『山本地區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1, 국제학술대회 『도자사 연구방법으로서의 ‘발굴’』.
- 경기도박물관, 2001, 학술대회 『광주 분원과 조선 도자』.
- 한국상고사학회, 2003, 『도자고고학을 향하여』.

## 논문

- 강경숙, 1998, 「도자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 『미술사연구』 제12호.
- \_\_\_\_\_, 1994, 「分院成立에 따른 粉靑沙器 編年 및 靑畫白磁 개시문제 시론」, 『李基白 先生古稀記念 韓國史學論叢(하), 일조각』.
- 김영원, 1982, 「朝鮮前記 粉靑과 象嵌白磁에 관한 연구-文樣과 器形을 중심으로」, 『고고미술』 153.
- 김영원, 2002, 「분원 관요와 지방요」, 『광주 분원과 조선도자』.
- 김인규, 1994, 「15세기 조선 백자의 기형과 문양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羅善華, 2001, 「發掘에 의한 窯業技術의 확인과 그 意味」, 『陶磁史 研究方法으로서

- 의 ‘發掘’,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朴廣春, 1997, 『數理型式學의 摸索』, 『嶺南考古學』 20.
- 박형순, 2004, 『조선시대 지방의 백자 가마에 대한 연구 -충청·전라·경상도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기훈, 2003, 『분원과 지방백자의 관계 시고』, 『조선의 도자문화와 관요의 의미』, 조선관요박물관.
- 전승창, 1996, 『15世紀 陶磁所 考察(I) -경상남도 상주지역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호암미술관 연구 논문집』 1.
- 전승창, 2003, 『조선시대 백자가마의 발굴성과 검토』, 『도자고고학을 향하여』, 한국상고사학회.
- 전승창, 1998, 『15世紀 粉靑沙器 및 白磁의 需要와 製器性格의 變化』, 『미술사 연구』 12.
- 전승창, 1994, 『15세기 분청사기·백자 이행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崔 健, 2000, 『‘干支’銘靑磁의 製作時期와 製作窯』,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 강진청자박물관.
- 최윤정, 2004, 『조선 17-18세기 전반 지방백자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本田まひ, 2003, 『壬辰倭亂 前後의 韓日陶磁 比較研究 -日本 九州 肥前陶磁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f White Porcelain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he South Gyeongsang-do Region( I )  
: Focusing on site of Baengnyeong-ri, Hadong

Kim, Yoon Hee

A local White Porcelain Kiln of Joseon Dynasty is of wide distribution across the country. It indicates that a local White Porcelain Kiln was made and used all over the country when it reached the particular tim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about grasping the point of type, form, characteristic of White Porcelain dug up from site of Baengnyeong-ri, Hadong. It is going to be studied in comparison with the central Kiln in Gwangju, Gyeonggi-do.

Site of Baengnyeong-ri, Hadong is located in Jinyeom, Hadong, in the south Gyeongsang-do region. The burningground, a layer heaped naturally, the wall of a pottery kiln was found. But the construction of a pottery kiln was not shown as it had been destroyed. The recent cultivation has destroyed a pottery kiln and this resulted in many problems in understanding the production process of white porcelain. Accompanying remains are soup bowl, cup, bottle. Among them, black inlaying White Porcelain, carved engraving jar, shape of fish bottle are shown.

There remains are shown with Central Kiln Style and The local White Porcelain Style. The local White Porcelain Style has tendency to elaborate in detail or not to decorate. This may imply that there were human resources between local kiln and central kiln.

And White Porcelain dug up from site of Baengnyeong-ri is products for civilian goods in 15~16 century in the south Gyeongsang-do region. It is special feature of White Porcelain soup bowl produced in 15~16 century. Above all things, Disappearing bowl's inside carving line is

www.kci.go.kr

special feature in 15~16 century. And Increasing of productivity which is produced in Hapcheon, Sacheon, Sancheng is in connection of economic relation and politica relation at that time.

This thes is with the object of grasping the point of type, form, characteristic of White Porcelain digged up from site of Baengnyeon-ri in Hadong, and making clear the relation from Gwangju and the south Gyeongsang-do(specially Baengnyeon-ri in Hadong). This thesis for A Study of White Porcelains of The local White Porcelains Style and situation of advanced White Porcelains Style of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Key words : the South Gyeongsang-do region, Early Joseon Dynasty, Baengnyeon-ri Hadong, royal klins, local klins, local porcelains